

##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 저작권 교육 내용 분석

정진철 · 유종열

전북 이리고 · 공주대학교

### I. 들어가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원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 살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음악이나 영상물의 불법 다운로드나 사용,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유통 등이 그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는 크게 증가 하고 있다. 2008년 11월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 건수는 78,757건인데 이 중에서 청소년 대상 고소 건수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03년은 10,369건, 2006년은 18,227건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던 고소 건수가 2007년에는 25,027건으로 늘어났고 2008년은 2003년에 비해 약 8배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 가운데에서 청소년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함은 물론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는 창작권자의 창작의욕을 저하시켜 결국 문화발달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대가 없는 사용은 사용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을 조기에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저작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들어보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7년도 조사결과에 따른 “저작권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8%,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92%였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 지식 및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생 62.2%였다.<sup>1)</sup> 이제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선택 사항이 아닌 꼭 필요한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교과서에서 저작권 관련 내

1) 문화관광부(2007),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의식조사, pp.81~83

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가 개발되어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여 저작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사회과를 중심으로 하여 2012년부터 적용될 교과서에서 저작권 관련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후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 개발에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 검정에 통과한 중학교 사회 1, 3학년 교과서에서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교육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1.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sup>2)</sup>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을 시도하였다. 개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였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정보화·세계화·개방화 시대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시민적 자질의 육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것이 성격, 목표, 방법, 평가에 반영되었으며,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기저를 유지하면서 체계를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내용상 사회 변동, 시대 상황, 국가·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였다. 국가·사회적 요구를 범주화하여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사회과와 관련해서는 지식 정보 사회와 세계화의 진행에 대한 대비,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세계화 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 교육 강화,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어 가는 가운데 능동적으로 경제생활에 임할 수 있는 생활경제 교육,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의 토대가 되는 법 교육,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는 국제이해 교육과 다문화 교육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역사는 역사 교육의 강화를 위해 과목으로 독립하였다.

셋째, 교과별 학습량 및 수준의 적정화, 학교급·학년·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 강화 등을 고려하였다. 시민성 함양 교과로서의 통합성과 사회과학 교육의 계통성 간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내용은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적정화, 중복성, 연계성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넷째, 현행의 사회과 통합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역사를 사회과 내 한 과목으로 독립하였고 편제를 조정하였으며, 교육과정의 대강화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시간 편제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사회 3시간을 편성하고, 중학교 1학년 사회 3시간, 2학년 역사 3시간, 3학년 사회 2시간, 역사 2시간을 편성하였다. 중학교의 사회과 편제는 다음과 같다.

2) 7학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교과서가 저술되었으며, 9학년의 경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교과서가 저술되었다. 7학년은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용과 구성상에 차이가 없으나, 9학년은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변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편제]

구분	중1	중2	중3	⇒	구분	중1	중2	중3
사회	3	3	4		사회	지리2 일반사회1		지리1 일반사회1
	지리2 세계사1	세계사1 일반사회1 국사1	일반사회1 지리1 국사2		역사		국사2 세계사1	국사1 세계사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p.270.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5 ;2009-10호).

【표 1】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구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학년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 사회 영역	일반 사회 영역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사는 세계</li> <li>◦ 다양한 기후 지역과 주민 생활</li> <li>◦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li> <li>◦ 지역마다 다른 문화</li> <li>◦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li> <li>◦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과 사회생활</li> <li>◦ 문화의 이해와 창조</li> <li>◦ 우리의 생활과 법</li> <li>◦ 인권 보호와 헌법</li> </ul>	좌동
8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li> <li>◦ 삼국의 성립과 발전</li> <li>◦ 통일 신라와 발해</li> <li>◦ 고려의 성립과 발전</li> <li>◦ 고려 사회의 변천</li> <li>◦ 조선의 성립과 발전</li> </ul>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li> <li>◦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li> <li>◦ 교류의 확대와 전통 사회의 발전</li> </ul>	-	-	좌동
9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사회의 변동</li> <li>◦ 근대 국가 수립 운동</li> <li>◦ 대한민국의 발전</li> </ul> <세계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와 국민 국가의 형성</li> <li>◦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li> <li>◦ 현대 세계의 전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의 개발과 이용</li> <li>◦ 산업 활동과 지역 변화</li> <li>◦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 문제</li> <li>◦ 세계 속의 우리나라</li> <li>◦ 통일 한국의 미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li> <li>◦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li> <l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li> <li>◦ 시장 경제의 이해</li> <li>◦ 국민 경제의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li> <li>◦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li> <l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li> <li>◦ 시장 경제의 이해</li> <li>◦ 일상생활과 경제 주체의 역할</li> </ul>

중학교 사회과에서는 학습자가 사회 공동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의식을 기르고, 자발성과 주체성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이는 초등학교에 사회과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지리·역사·사회과학에서 중요 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따라 발견·적용하고,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공동 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의식을 발휘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학습할 사회 현상의 종합적인 이해, 비판적 사고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 사회 공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시민 의식을 기르는 데 바탕이 된다.

각 영역별로는 사회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학습자의 수준,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특성에 기인한 국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사회의 지리 영역에서는 영역 내 통합을 지향하고,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연계시키는 방향에서 내용을 선정하였다. 역사 영역에서는 국사는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구성하였고, 세계사는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국사와 세계사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일반사회 영역에서는 정치·법·경제·사회 문화의 지식 구조를 고려하여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표 1]에서 보듯이 중학교 3학년 내용 구성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지리영역과 역사영역은 변화가 없으나, 일반사회 영역에서의 내용과 주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중학교의 교육내용 중에서 저작권 교육에 관련성이 있는 학년은 주로 1, 3학년이다. 2학년의 내용은 한국사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 3학년의 내용은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 영역의 경우 선정된 내용과 학습 방법이 저작권 교육과 관련성이 높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 도표, 통계 자료 및 신문 자료,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지리 정보 매체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저작권 관련 유의 사항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일반사회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지식을 광범위하게 다루어 내용 요소에 치중하는 경우 저작권 관련 학습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는 문제들과 정책, 법 등을 연관시켜 저작권 교육을 한다면 직접적인 이해와 다양한 기능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주제 및 성취 기준별로 저작권 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이재승 등(2009)이 제시한 저작권 교육내용의 주요 영역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표 2] 저작권 교육 관련 교육과정 내용 분석

저작권 교육내용	교육과정 영역	해당 학년	내용 주제	성취기준
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태도	일반사회	1	00 인권 보호와 헌법	④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 의식을 가진다.
	지리	3	(1) 자원의 개발과 이용	④ 우리나라, 일본 등을 사례로 인적, 문화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세계 속의 우리나라	⑥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적, 문화적인 특색을 외국인에게 간략하게 설명한다.
일반사회	3	(8)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⑤ 경제생활 속에서 소비자(저축·투자자), 생산자(기업가와 노동자),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과 책임을 탐색한다.	
나. 저작권에 대한 이해	일반사회	1	(9) 우리의 생활과 법	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3	(7)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③ 정치 과정에서의 행위 주체와 기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진다.
			(9) 시장 경제의 이해	⑤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인 사유 재산권, 경제 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등에 관하여 헌법의 기본권과 경제 조항에서 근거를 찾아 그 의미를 설명한다.
다.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이용 방법과 제한)	지리	1	(1) 내가 사는 세계	③ 지도나 위성사진, 인터넷을 이용하여 내가 사는 동네와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위치를 조사한다.
			(3) 다양한 지형과 주민 생활	① 인터넷 또는 시각 자료를 통해 독특한 지형 경관을 살펴보고, 세계 지형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3	(1) 자원의 개발과 이용	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의 원료를 알아보고, 원료의 원산지 및 이동 과정을 파악한다.
			(3) 지역에 따라 다른 환경 문제	①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왜 그러한 활동을 하는지 이해한다.
(4) 세계 속의 우리나라	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한다.			

라.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실천	일반사회	1	⑨ 우리의 생활과 법	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	------	---	-------------	-------------------------------------

[표 3] 저작권 교육 관련 교육과정 내용 분포 횟수(1.3학년)

영역	저작권 교육 영역별 관련 교육 내용 분포 횟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태도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실천
지리	2	-	5	-
역사	-	-	-	-
일반사회	2	4	-	4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내용은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태도,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실천 등 관련 내용 영역 전체가 고루 다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교육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라.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실천'이다.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과의 특성 때문이다. 사회과는 사회인식 교과로서 학습자가 사회현상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 교육과정 영역으로 보자면,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역사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작권 교육내용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물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사료들을 매개로 역사 인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내용들이 다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상의 성취 기준을 보면, 이러한 역사 탐구의 과정들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2. 사회과 교과서 분석

### 1) 1학년 사회 교과서 분석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2010년부터 학교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분석 대상은 검정을 통과하여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5개 교과서를 활용하였다<sup>3)</sup> 또한 내용 분석의 대상은 일반사회 영역에 한정한다.

1학년의 일반사회 영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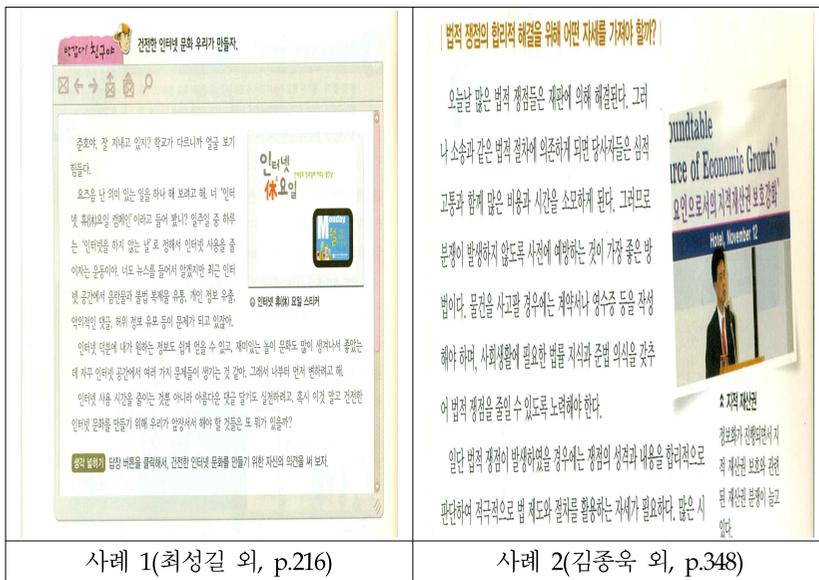
먼저, 제7단원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의 소단원인 '사회적 상호작용 유형' 단원에서 저작권 교육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정보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제제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과 범위가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면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식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현실의 인간관계가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져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접 만남 적이 없는 사람들과도 흥미와 관심 분야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3) 본 연구 대상 교과서는 1학년 교과서의 경우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중 5종이며, 3학년 교과서는 2010년 검정을 통과하여 현재 학교에 배부된 전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다. 많은 인터넷 동호회들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관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활동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이디(ID)는 또 다른 나의 모습, 즉 자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아이디를 통해 활동하는 우리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최성길 외, 2010:132)

위와 같은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다루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다운로드, 펌, 정보왜곡, 자료 도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러한 행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인 폐해와 문제점들을 관찰하여 이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실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사례 1]처럼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활동을 통해서도 불법 복제물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 관련 사안이 다루어질 수 있는 단원이 바로 9단원 ‘우리의 일상생활과 법’이다. 이 단원의 경우, 법교육을 우리 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생활과 법’이라는 제재에서 법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제재 역시 저작권 교육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는 도덕, 관습, 법 등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사회 규범이라 한다. (중략)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질서 속에서 분쟁을 겪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제공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준다. 그렇지만 법이 있더라도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쟁을 해결할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법이다. 법을 통해 분쟁 당사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피해를 본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경주 외, 2010: 228~230)

앞서 제시한 내용은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실천’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즉,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법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의 역할에 대해 사고할 수 있고, 이러한 사례로 저작권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중학교 사회1 교과서에서 저작권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단원은 9단원 중 소단원 ‘일상생활과 권리’이다. 이 단원에서는 ‘일상생활과 직업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권리’ 중 ‘사이버 생활에서의 권리’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정보 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사이버 생활에서의 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서태열 외, 2010: 252)

또한 같은 단원의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부분에서는 최근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분쟁이 늘고 있는 분야를 ‘지적 재산권’으로 특별히 설정하여 강조하고 있다(사례2). 이는 법적 쟁점의 사례로 지적 재산권을 들고, 이것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해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함으로써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 능력’ 신장과 연결시킬 수 있다.

## 2) 3학년 사회교과서 분석

다음으로 3학년의 일반사회 영역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6단원과 7단원은 일반사회 영역 중 정치에 해당한다. 그 중 7단원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단원이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 사회가 발전함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논쟁 중심의 학습을 경험함으로써 참여 주체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320)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③ 정치 과정에서의 행위 주체와 기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의 성취기준을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연결시킬 수 있다. 많은 교과서에서 학원의 심야교습, 학생 인권조례, 학교 체벌 금지 등의 학생들과 밀접한 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싼 쟁점, 군 가산점제 등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천재 문화’ 교과서의 경우 정보와 관련된 시민의 권리로 대중 매체 접근 이용권, 정보 공개 제도 등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정책 이외에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을 교사가 제시하고 그것을 각 정치주체들의 역할, 입장과 연결시킨다면 저작권에 대한 개념,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라는 세부 요소를 학습할 수 있다.

8단원, 9단원, 10단원은 경제와 관련된 단원이다. 이들 단원은 주로 경제 관련 개념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저작권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 현상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사례, 객관적인 수치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관련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 단원보다 많은 통계와 도표, 자료 등이 제시되는 것은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을 학습하는데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만을 학습하기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 중 9단원에서는 저작권 교육 내용 중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학습하기에 적합하다. ‘⑤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인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등에 관하여 헌법의 기본권과 경제 조항에서 근거를 찾아 그 의미를 설명한다.’라는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저작권과 경제 조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학습을 한다면, 학생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 3]은 ‘친재문화’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마당은 헌법과 시장 경제 활동의 보장내용을 학습하면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영역을 넣었다. 불법 복제가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저작권 보호 제도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과 관련 제도의 효과 등을 물음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저작권의 개념과 관련 법 조항을 학습할 수 있다. 교과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교사가 자료를 재구성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와 그로 인한 처벌 사례 등을 통해 학습한다면 학생들이 실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폐해와 문제점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p><b>활동마당</b>   지식 재산권 보호하기  </p> <p>자료 ①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자는 어디로?</p> <p>일본 도쿄의 한 대형 디지털 가전 판매점은 한 개 중 전체가 패키지 소프트웨어 대량이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사팔에서 책을 고르듯 다양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고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가전 판매점에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찾기 어렵다. 정말 기업들이 불법 복제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09년 41%로, 2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은 물론 OECD 평균인 27%보다도 높다.</p> <p>자료 ② 카피 제로 운동</p> <p>정부가 소비자, 기업과 함께 ‘카피 제로(Copy Zero)’ 운동을 나섰다.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적을 조사하고, 정품 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컴퓨터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제도가 반짝이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원부 영감이 가능하더라.”라고 설명했다. -OO일보 2010년 5월 5일 자-</p> <p>1 자료①에서 불법 복제가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준해 보자. 2 자료②의 저작권 보호 제도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찾아보고, 이러한 제도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미칠 효과에 대해 설명해 보자.</p>	<p><b>인터넷 해결질은 증명하기?</b></p> <p>‘해적당’은 국내에서는 낯설지만 유럽 의회에 2008의 의원을 진출시킨 스웨덴의 합법적인 정당이다. 해적당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가 ‘해적질’로 일컬어지는 환경에서 온라인상의 정보 공유와 다운로드 권리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저작권법과 정면 대결을 선언하였다. 2006년 1월 창당하여 2009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총투표의 7.13%를 얻는 박람을 일으켰다. 해적당은 현재 저작권법의 전면 개혁과 특허 시스템 철폐, 디지털 활동에서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해적당은 인터넷에서 이용자와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활동하고 있다. OO신문 2010. 10. 19.</p> <p>생각해 보기: 해적당의 주장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p>
<p>사례 3(류재명 외, p.205)</p>	<p>사례 4(최병모외, p.242)</p>

이 외에도 저작권 교육 내용 중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실천’을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사회과에서 다루는 세계화, 정보화의 개념은 저작권 문제를 가장 전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정보화란 고도로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정보의 생성, 전달, 가공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 부각되며, 정보 산업이 핵심적인 산업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보화는 우리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먼저,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부가 가치의 원천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보와 지식의 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최병모 외, 2010:242)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아래와 같이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 4]는 스웨덴의 ‘해적당’이 온라인상의 정보 공유와 다운로드 권리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저작권법과 정면 대결을 선언하고 그에 대해 활동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적당’의 주장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지를 그 이유와 함께 묻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고, 저작권 침해 및 구제제도, 저작권 문제의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0단원의 ‘일상생활과 경제주체의 역할’ 단원에서는 ‘⑤ 정보화, 세계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성취 수준과 관련하여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통신 장비를 둘러싼 벌어지고 있는 국가간·기업간 특허 분쟁을 사례로 하여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움직임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 3. 저작권 교육의 반영 방안

사회과에서 저작권 관련 내용은 주로 일반사회 영역이다. 저작권 교육 내용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태도,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저작권의 올바른 이용,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실천 등 네 영역으로 구분한다면, 일반사회 영역은 다른 사회과 영역(지리)에 비해 직접적으로 저작권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7학년 8단원의 ‘문화의 이해와 창조’에서는 문화가 창조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와 올바른 이용이 필요함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9단원 ‘우리 생활과 법’ 단원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과 그 위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해 볼 수 있다. 10단원 ‘인권 보호와 헌법’ 단원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저작권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이용 방법, 그리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저작권 관련 개인적·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9학년의 7단원 ‘민주정치와 시민 참여’ 단원에서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어떤 과정과 주체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며,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 양상 가운데 자신의 권리나 사회적 공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의 사례로 저작권 관련 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쟁점이 어떻게 정치화되고 해결되는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8단원의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단원에서는 경제 생활 속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건전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가 필요하며, 그 권리가 정부에 의해 보호될 때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교육하면서 저작권 교육을 할 수 있다. 9단원의 ‘시장경제의 이해’ 단원에서는 저작권이 시장경제의 제도적인 원칙인 사유 재산권, 경제 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원리와 매우 밀접한 내용임을 교육하면서 저작권 교육을 할 수 있다.

10단원의 ‘일상생활과 경제주체의 역할’ 단원에서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등을 학습하면서 저작권 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내용을 저작권 교육과 관련지어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사회과 내용 영역별 저작권 교육 내용

사회과 내용 영역	학년	단원	저작권 교육 내용
일반사회	1	7단원 ‘개인과 사회 생활’	·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태도
		8단원 ‘문화의 이해와 창조’	
		9단원 ‘우리의 생활과 법’	
	3	10단원 ‘인권 보호와 법’	·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실천 ·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태도
		7단원 ‘민주 정치와 시민 참여’	
		9단원 ‘시장 경제의 이해’	

#### IV. 맺으며

저작권 교육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을 길러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사회과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교육은 사회과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과에서 저작권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가?

첫째, 사회과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다른 교과와 다른 독특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 교육은 국어, 사회, 도덕(윤리), 기술·가정, 실업 교과 등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간학문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저작권 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 교과와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 영역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과의 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과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교육은 사회과의 교과 특성에 맞추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치 영역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집단과 개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정치화되며,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해결되는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배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법 영역에서는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지식 교육과 함께 실제 생활 속에서 발생하였던 법적 갈등이나 판례들을 통해 저작권 교육의 실제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헌법과 관련해서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탐색해 봄으로써 저작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의무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 영역에서는 저작권

은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리인 사유 재산권 및 사적 이익 보장 원리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사회·문화영역에서는 저작권은 건전한 문화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문화의 상품화와 문화 콘텐츠 산업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과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사회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독특성과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과에 포함된 각각의 영역에 걸맞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과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즉,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개인과 사회의 문제, 쟁점, 과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 내용은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 보다는 다양한 논점을 가지고 있는 논쟁점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저작권에 대한 당위적이고 이념적인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내용보다는 저작권을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논의할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이 저작권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작권 관련 내용이 학교급간, 학년간에 위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급의 성격, 학문의 고유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을 저작권의 이용과 쟁점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현상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합적 주제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 관련 내용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 학습 준비도, 사회적 경험, 사회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즉, 시간적·공간적·사회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자기 생활 주변의 저작권 관련 내용으로부터 각 지역, 국가, 세계의 저작권과 관련된 현상들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로 나갈 수 있도록 내용 조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구체적 사례와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게 하고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누적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과 관련된 개념과 지식들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확대 인식·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넷째, 교사 중심의 저작권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사 중심의 강의식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과 관련된 단순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는 교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 세계와 유리된 지식만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 세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직접 체험하고 활동하면서 저작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수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역할놀이, 모의재판, 협동학습과 같은 다양한 수업 모형을 활용한다면 좀 더 효과성 높은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 교사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제공을 위한 연수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과 교사의 대부분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의식이 강하지 않은 시기에 교원양성 교육을 받았으므로 저작권 의식이 높지 않은 편이다. 사회과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분쟁들을 다룰 필요가 있는 교과이므로 저작권과 관련된 심화된 지식과 교수법의 숙지는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올바른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이해시켜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과 저작권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교사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인식과 태도는 학생들의 올바른 저작권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교사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인식과 태도는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의 실시와 연결되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과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 연수의 확대 및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은 사회과에서의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구정화 외(2007), 저작권 교육의 정규 교과 내용 반영을 위한 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김규희·이재근(2009), 저작권 아카데미 표준 교재 신문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0), 저작권 킹왕짱.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박성호(2006),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송영식·이상정(2007),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이규호(2011), 저작권법, 진원사.  
 이윤창(2006),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및 교수 학습 모형 제시, 인하대 석사논문.  
 이재승 외(2007), 저작권 교육의 정규 교과 반영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재승 외(2009), 저작권 교육의 교재 반영 양상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해완(2007), 저작권법, 박영사.  
 임원선(2003), 교사를 위한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1),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저작권위원회(2008),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정순원(2004), 정보화 사회에서 학교교육목적상 저작권 제한, 법교육연구 제16권 1호  
 최윤진 외(2006a), 2006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윤진 외(2006b), 청소년 저작권 교실 중등용,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2007),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2011),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2011), 검정도서 내 저작권 교육의 교재 반영 양상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